

# 오케스트라 선율에 담긴 '광주 정신'



뮤직노마드가 오는 12일 전남대 민주마루에서 현대창작관현악축제 '시절유감-광주2024'를 펼친다. 사진은 지난 4월 일신홀에서 진행했던 공연 장면. <뮤직노마드 제공>

광주의 시대 정신을 관현악곡에 투영한 작품은 많다. 수년 전 광주문화재단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창작관현악 버전으로 선보였던 것과 올해 광주 시립국악관현악단이 5월 정신을 '이카루스' 등이 그것이다.

광주정신을 비롯해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 풍광들을 창작관현악 레퍼토리로 승화시키는 연주회가 펼쳐진다. 작곡동인단체 뮤직노마드(예술감독 정현수)가 진행하는 현대창작관현악축제 '시절유감-광주2024'.

행사는 오는 12일 오후 7시 30분 전남대 민주마루에서 뮤직노마드 창단 15주년을 기념해 열린다. 광주 자연을 주제로 '무등산', '황룡강' 등을 다룬 창작-초연곡 다섯 편을 만날 수 있다.

먼저 유복음은 광주의 기억을 투신한 곡 '무등'을 들려준다. 곡의 모티브가 된 황지우의 '무등'은 본문을 산의 형태로 나열해 무등산의 의미를 폭넓게 사유하는 13행 구체시(具體詩)다. 유 씨는 이를 한 편의 관현악곡으로 탈바꿈시켜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온 역사의 흐름을 표현한다.

강보란은 현악오케스트라를 위한 '기억의 재: 1980'으로 5·18 당시 비극적인 기억을 현재에 소환한다. 충돌되는 음정과 선율, 상승하는 반음계적 진행들이 '흔든', '갈등'의 감정들을 떠올리게 한다.

강 씨는 "기억의 재"는 1980년 5월, 영문도 모

뮤직노마드 15주년 연주회  
12일 전남대 민주마루서 공연  
'무등산'·'황룡강' 등 초연작 5편  
아름다운 자연 풍광 등 레퍼토리로  
지역 자원·역사 사유... 전석 무료

른 채 민중에게 들이닥쳤던 일대 대해 의문을 던지는 '한 남자'를 중심으로 전개된다"며 "남자의 내면 속에서 혼돈, 순응 등 감정의 충돌이 일어나지만 이를 딛고 나아가는 희망적 내러티브를 보여준다"고 했다.

이어지는 이은주의 '물안개'는 플루티스트 이주혜 협연으로 울려 퍼진다. 물안개가 피어오르기 전 황룡강의 수많은 조류들을 '오후', '밤', '새벽'까지 세 부분으로 나눠 표현했다.

첫 부분은 새들의 바쁜 움직임, 중간은 밤이 드리운 황룡강 풍경을 묘사했으며 마지막은 피어오르는 물안개를 d음의 배음(倍音)을 중심으로 형상화한다.

한경진은 '어등산'도 레퍼토리에 있다. 그는 "구름과 안개가 가득했던 어느 날, 어등산 짙은 산길을 오르며 마주한 '생명력'을 악곡에 투영했다"며

"금관악기와 목관악기, 타악기가 각기 지닌 개성 있는 색채를 결합해 산이 주는 심상을 악곡에 풀어냈다"라고 창작 의도를 설명했다.

끝으로 정현수의 '영원의 흐름'은 광주의 역사·문화·자연적 요소들을 유기적인 서사로 엮은 교향시다. 지속적인 시간 흐름을 상징하는 두 음고의 트릴(뚜땀땀)은 빛고을의 변화와 영속성을 대변한다.

전곡 지휘는 박인욱이 맡았으며 카메라라 전남이 협연할 예정이다. 무등산 주상절리와 어등산의 풍광, 1980년 광주 곳곳의 운치를 담은 영상들도 오케스트라 선율과 어우러진다.

출연진은 대부분 전남대 예술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한경진은 전남대 예술대에서 교수로, 이은주는 전남대 예술대 및 광주보건대 강사로 재직 중이다. 또 강보란은 전남대 및 광신대에서 강의 중이며 유복음은 ACC 테크니션 및 미디어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정현수(전남대 교수) 예술감독은 "광주가 나아가 갈 미래 동력에 힘을 실어주는 이번 공연이 시민들에게 풍요로운 예술적 경험과 심미안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섯 편 창작 초연곡을 통해 관객들이 지역 자원과 역사를 사유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전석 무료(초대권 선착순 배포).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가수 기드온, 가을 부르는 '포크 무대'

21일 카페뮤지엄...이정우·박찬영 등 지역 청년 예술가 출연

광주 포크음악의 맥을 잇고 있는 기드온은 2020년 '기드온 1집'을 발매했으며 제11회 5월 창작가요제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외 민중가요 다시부르기 앨범 '오월의 노래?'에 참여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가수 기드온이 '기드온 온(溫), 전한 기쁨 소극장 콘서트'를 오는 21일 오후 7시 카페뮤지엄(수안수센터 1층)에서 연다. 지역에 기반을 둔 이정우(퍼커션), 박찬영(트럼펫), 한수정(베이스), 김예은(첼로) 등이 무대에 오르며 게스트 가수로 류의남이 출연한다.

"멀리 있는 것을 어떻게 잡아/ 가까이 있는 것도 잡기 힘든 세상에/ 꿈이 어찌고 이상이 저찌고 거/ 말은 참 좋더라/ 그거 쫓다 눈떠보니 나이만 먹었네"( '멀리 있는 것을 어떻게 잡아?' 중에서)

공연은 꿈과 이상의 간극에서 깊어져가는 예술가의 고뇌를 담은 기드온 1집 수록곡 '멀리 있는 것

을 어떻게 잡아?'로 시작한다. 가사를 통해 '멋진 음악 차고 넘친 세상'에서 '말을 듯 말 듯 잡히질 않'는 예술을 노래한다. 이어 마음을 훔치러 온 음프파탈에 스스로를 빗댄 곡 '도둑고양이', 사랑의 서정을 산들바람과 돌다길 등에 빗댄 '나의 사랑'도 울려 퍼진다.

2022년 릴리즈한 앨범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 중 '첫 베이커리'도 레퍼토리에 있다. 빵을 사러 갔다가 미국의 재즈음악가 첫 베이커의 노래를 만났던 일화를 녹인 노랫말에 음악에 대한 동경심을 가득 담았다. '그대가 보이면', '내 꿈에', '권' 등도 만날 수 있다.

기드온은 "광주에서 활동 중인 2~30대 청년 뮤지션들과 함께 여태 발매했던 음반의 곡들로 레퍼토리를 구성했으나, 많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관람료 5000원(음료 별도).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호랭이가 답삭 물어갈 뺱파야~'

국립남도국악원, 21일 전북도립국악원 창극단 초청공연



전북도립국악원 창극단이 해학창극 뺱파전 '호랭이가 답삭 물어갈 뺱파야'를 펼치는 모습. <국립남도국악원 제공>

심 생원은 딸 심청이 공양미 삼백 석에 몸을 팔아 자신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인당수에 몸을 던지자, 종일 울며 지낸다. 이때 옆 마을의 뺱파라고 하는 행실이 사나운 자가 '심 봉사가 돈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꼬드긴다. 뺱파는 옛 애인인 황칠이를 불러 심 봉사를 몰래 밀회를 즐기고, 그의 재산을 갈취한다.

그러던 중 황성에서 맹인 소리 잔치가 열리고 소리를 잘하던 심 생원은 행사에 초청을 받아 소리꾼으로 무대에 오른다. 이를 방해하기 위해 뺱파는 황칠이를 우습게 하기 위한 공작을 펼친다. 소리잔치 우승자는 누구이며 심 봉사는 오매불망 심청과 재회할 수 있을까.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 초청공연 '호랭이가 답삭 물어갈 뺱파야'를 오는 21일 오후 3시 국악원 진악당에서 연다. 전북도립국악원 창극단(예술감독 김자경)을 초청해 1981년 만들어진 김일구 명장의 '뺱파전'을 현대적으로 선보이는 공연이다.

문배도가 걸려 있는 성황당에 굿판이 펼쳐지는 '어는 마당, 무당 곳'으로 시작하는 공연은, 제1장

'뺱파의 자진 출가'와 2장 '뺱파와 황칠이의 재회'로 이어진다.

심 봉사가 황성으로 떠나면서 졸봉사들과 즐거운 놀이를 펼치는 '심 봉사 황성 가다', 호랭이가 뺱파에게 전벌을 주는 '호랭이의 심판'은 각각 3~4장의 주제들이다. 끝으로 5장 '부녀 상봉'과 전 단원들이 춤을 추는 '답는 마당, 나는 미씨 뺱 전복 뺱파'로 막을 내린다.

뺱파가 심봉사 마음을 휘둘렀다가 버린 후 호랑이에게 벌을 받는 장면은 통쾌하면서도 잔잔 여운을 남긴다. 뺱파 역에 심세미, 심봉사 역에 김도현, 이외 박현영(황봉사), 최현주(심청), 이충현(황제) 등이 출연.

김자경 예술감독은 "날것의 힘이 담겨 있는 뺱파전에는 캐릭터의 생명력, 노랫가락의 삶이 있음이 느껴진다"며 "아니리 어느 하나도 버릴 것 없는 이 작품이 관객들에게 희로애락의 감정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무료 관람(만 5세 이상), 국악원 홈페이지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시민과 함께한 '광주향교 석전대제'

유교 제향 의식... 신수정 시의장, 여성 초헌관으로 출연 '눈길'

석전대제는 공자를 비롯한 4성(四聖)과 송조 2현, 우리나라 18현을 모시는 제향 의식을 말한다.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85호로 지정돼 있으며 유교의 중요한 의식 가운데 하나다.

광주향교(전교 기호석)는 10일 오전 유림과 시민들과 함께 추기 석전대제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전국 최초 대성전에서 펼쳐졌으며, 명륜당 앞뜰에서 볼 수 있도록 영상으로 중계됐다. 이 같은 프로그램은 우리 전통문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특히 초헌관으로 참여한 광주시의회 신수정 의

장은 전통 혼례복을 입고 제를 지내는 광주향교 첫 여성 초헌관으로 역사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신 의장은 "전통과 현대의 만남인 추기 석전을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영광스럽다"며 "앞으로도 선성선현의 정신을 계승하고 광주의 인문적 가치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주향교 기호석 전교는 "이번 석전행사는 시민과 함께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도 광주향교는 전통문화체험 및 예절교육 등을 실시하는 전통문화살롱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